마지막 종회 파행, 선관위원장 선출 논란

중앙종회, 지난 회기서 안건 철회된 세영 스님 재추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 제212회 임시회가 개원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종법개정안보다 우선 안건으로 채택된 인사안에 대한 의사일정과 중앙선관위원장 선출 논란, 해종특위 구성 등을 놓고 여권과 야권 종책모임의 기싸움이 벌어졌다. 종단 대의기구인 중앙종회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부끄러운 모습을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6일 개원한 제212회 임시회서 인사안을 우선적으로 다뤄 재심호계위원에 법광 · 정문 스님, 초심호계위원에 선조 스님, 법규위원에 진성 스님, 중앙선관위원장에 세영 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에 인오 · 응묵 스님을 선출했다.

인사안 놓고 갑론을박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륜승가회가 재심호계위원과 중앙선관위원장 선출에 이의를 제기했다. 먼저 재심호계위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의안접수 등의 마감일인 8월 30일이 지나 9월 4일 추천된 정문 스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법륜승가회 광전 스님은 "종회 사무처에서 공문을 통해 의안접수 마감일을 통지했고, 개인적으로 전화로 확인했을 때도 8월 30일이 마감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9월 4일 추천된 후보가 본회의에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종회 사무처와 법제분과위원장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법과 종회 운영규칙에서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추가로 접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종단 변호사도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자 법륜승가회 측은 이를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는 추천된 후보가 늘어나 표결로 이어질 경우 소수파인 법륜승가회 측이 추천한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일정 · 안건상정 등 놓고
야권 법륜승가회 강력 반발
회의장 퇴장 및 기자회견도

파행 속에도 각종 종법 개정
9인의 해종특위 구성도 결의

2개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재심호계위원으로 추천된 후보는 법광 · 정문 · 현조 스님 3명. 실제 이 중 현조 스님을 법륜승가회 측에서 추천했지만 최종적으로 법광 · 정문 스님이 선출됐다. 이에 앞서 법륜승가회 소속 의원 14명은 의사일정과 중앙선관위원장 세영 스님 재추천, 해종특위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사진은 제16대 중앙종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 제212회 임시회 모습.

법륜승가회 "임시회 거부" 입장

법륜승가회 퇴장과 함께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이어진 회의에서 세영 스님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세영 스님은 앞서 211회 임시회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추천됐으나 법륜승가회가 자격을 문제 삼으며 반대의견을 표출, 발의자가 추천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다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추천되면서 법륜승가회와 재차 마찰을 빚었다.

212회 임시회서도 법륜승가회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른 시간에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인사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법륜승가회는 회의장 퇴장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륜승가회는 212회 임시회를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각종 종법 미비사항 재정비

중앙종회는 오후부터 종법개정안을 처리하며 종법 미비사항을 재정비했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 임기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前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중앙종회 불신임 결의 이후 수차례에 걸쳐 총무원 부실장을 교체하면서 혼란을 겪은 일을 예방하기 위한 총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가 결정되면 총무원장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며, 권한대행을 중앙종회가 선출하게 된다.

승려법 개정안은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위해 작성하는 유언장을 제출하지 못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일부 스님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해 호법분과위원회 간사인 제민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호법부와 함께 9인의 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다. 활동 기간은 16대 중앙종회 임기만료까지다.

염불시연대회가 돌아왔다… 학인 염불제일은?

조계종 교육원, 9월 19일 조계사서 염불대회

2014년 이어 4년 만에 개최
개인 · 단체, 전통 · 창작으로
15개 기관 · 277명 학인 참여
"무엇 상상하든 그 이상 볼 것"

조계종 학인 염불제일을 겨루는 염불시연대회가 다시 돌아왔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9월 19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2018년 조계종 학인 염불시연대회'를 개최한다.

2014년 첫 대회 이후 4년만에 열리는 염불시연대회는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인 스님들 대상으로 염불수행에 대한 관심 증강과 의례 의식 이해를 위해 열린다.

'염불자수(念佛者誰) - 염불하는 이가 누구인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개인부 2개 분야(전통 · 창작염불), 단체부 2개 분야(전통 · 창작염불) 총 4개 분야로 진행한다.

개인부는 염불시연자 1인을 기준으로 2인 이하의 보조자가 염불시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시연시간은 5분이다. 단체부 참가기준은 염불시연자 3인 이상 20인 이하이며, 시연시간은 8분이다.

전통염불 참가자는 기존에 전래된 염불을 범음으로, 창작연불 참가자는 전통염불을 편곡하거나 새로운 염불을 창작해 시연할 예정이다.

올해 염불시연대회는 현재 종단 기본교육기관 15개 기관에서 총 277명의 학인 스님들이 예선 참가를 신청했다. 개인부 40명(전통염불 25명, 창작염불 15명), 단체부 21팀(총 237명)이 참가하며 본선에는 개인부 12명(전통6명+창작6명), 단체부 8팀(전통4팀+창작4팀)이 진출하게 된다.

염불시연대회의 심사는 예선의 경우 분야별 3인 1조로 구성된 심사위원진이 채점하며, 본선은 심사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본선에는 스님과 재가자로 구성되는 80인을 초청 · 구성된 '청중공감단'의 공감지수를 심사점수에 50%를 반영한다.

예선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본선은 오후 1시 30분부터 조계사 마당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어려운 종단 사정과 연일 이어진 기록적 폭염에도 학인 스님들이 피땀 흘려 준비한 대회"라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학인 스님들의 열정을 통해 한국불교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학인들의 전법역량을 강화시키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년전부터 염불시연대회(2014년), 외국어스피치대회(2015년), 토론대회(2016년), 설법대회(2017년)를 진행해오고 있다.

신성민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자연을 살생한 인과응보

옛날에 어느 스님한테 한 젊은이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지옥과 극락은 정말 있습니까"

스님은 갑자기 젊은이의 목을 물항아리 속에 넣었습니다. 젊은이는 숨이 막혀 괴로워 했습니다.

이때 스님은 젊은이의 목을 놓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웠지? 그 물 속에서 괴로워하던 때가 지옥이고, 숨을 다시 쉬게 됐을 때가 극락이라네."

올 여름 우리는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지옥'에서 한달이나 살았습니다. 태풍지옥과 폭우지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폭염지옥과 소욕지족 그림 · 조향숙

탐욕이 불러온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재앙 예고
'소욕지족' 온난화 해법

이러한 기상이변은 이웃나라 일본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몸살을 앓아온 지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인간에게 경고성 보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자연의 혜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마치 정복자처럼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기상변화는 이러한 이기적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보복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자연살생의 인과응보입니다.

*올 여름 폭염은 본격적인 기후변화 진행을 예고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온난화는 온대기후 지역이 점차 아열대 기역으로 변화하면서 가뭄, 폭염, 홍수, 태풍 같은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아지는 기상이변의 주요원인입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위기와 식량감소 위기를 초래해 인간의 삶을 위협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재앙 예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자기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숨쉬고 먹고 활동하는 '생명의집' 지구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땅이 오염되고 바다와 대기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을 비롯해 모든 생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때 지구는 더 이상 생명의 집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대재앙을 막기 위해 지구온난화 줄이기에 나서야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밀림이 붕괴하고 그 이상으로 오르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연쇄반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먼저 석탄 ·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에서 나오는 기온상승의 주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꿉시다.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산림훼손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 사용 억제, 재활용 분리수거, 냉 · 난방 온도 조절, 육식 줄이기 실천은 조금 '불편하게 살기'입니다. 욕망줄이기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합니다. 소욕지족(少欲知足)합시다. 작은 것에 만족할 때 넉넉해지고 행복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하지만 사실은 부유하다."〈유교경〉 소유와 과소비 그리고 편리함에 길들여진 오늘 우리에게 '소욕지족'은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 해답입니다. 지구를 아름다운 한송이 꽃(世界一花)으로 가꿉시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영어로 전법 · 교화하실 스님을 모집합니다!'

스님을 위한 영어 전문가 양성과정 **국제불교영어학과** 제5기 학인 모집

글로벌 시대에 전법교화의 주인공으로 영어 지도자 과정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안내(5학기 과정)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내외 사찰 등에서 영어로 전법교화 활동을 하고자 원력을 세우신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전문 교육기관임

● 졸업 후 활동 영역
• 외국인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청소년 영어법회, 사찰문화해설 등 교화활동
• 종단 국제교류 및 포교활동, 국제회의 및 행사 지원활동

● 지원자격
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2019년 3월 구족계 수지 예정자 포함)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스님
나. 사미, 사미니로써 '기본교육과정 이수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 4항 내지 8항에 의거하여 승인절차를 득하고 석사과정 진학을 예정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스님

● 교육과정 특징
동국대학교 영어교육 전문시스템(ACE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교육을 시행하며, 전문영어교육으로 말하기, 읽기, 쓰기, 발표, 회의진행, 통번역과정의 교과목을 원어민 교수가 강의

● 특전
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종단지원
나. 기숙사 제공, 해외연수 실시(종단 전액지원)
– 전원 기숙사 제공
– 석사 3학기 중 3주간의 해외연수 실시
다. 2,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중 2년의 교육경력 인정
라. 사미, 사미니 스님이 졸업하는 경우 4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부여
마. 졸업 후 해외유학, 국내 통번역과정 대학 입학시 종단 장학승 우선선발

● 2019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가. 전형일정

원 서 접 수	전 형 일
2018년 10월 1일(월) ~ 31일(수)	2018년 11월 15일(목) 예정

나. 전형방법 : 학부성적, 영어구술고사, 면접고사
다. 전형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 전형일정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홈페이지(web.dongguk.ac.kr) 참조바람

●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02-2011-1809)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학사운영실 (054-770-2393)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